

뉴스제휴평가위 1차 평가결과 발표, 포털 제휴매체 70개 늘어

퇴출은 없고 입점매체 증가에 우려 목소리 높아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제1차 '뉴스검색제휴' 평가 결과를 5월 27일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뉴스검색제휴'를 신청한 540개(네이버 470개, 카카오 224개, 중복 154개) 매체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네이버 45개, 카카오 42개 총 70개(중복 17개) 매체가 합격했다. 비율로는 11.63%이다.

〈표〉 포털 검색 제휴 현황

검색제휴	2015	2016. 3	2016. 6. 7
네이버	451	529	580
카카오	634	791	866

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60%)'로 평가를 진행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를 통과한 매체의 결과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 뉴스검색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뉴스제휴평가위 김병희 제2소위원장은 "뉴스 검색 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향후 보다 엄정한 제재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뉴스제휴평가위 규정을 피해가는 신종 어뷰징 행태가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진행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해 광고주들은 '기업 부담만 가중된 꼴'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인터뷰에 응한 기업 홍보담당자는 "기존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매체들은 전혀 퇴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휴매체 수만 더욱 늘어난 상황"이라며 "그동안 포털에서 해오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광고주협회 광혁 상무는 "현재의 제재 심사규정에서는 부정행위(어뷰징)를 저지른 매체가 퇴출되기까지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또한 충분히 피해나갈 여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매체 입점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퇴출 절차부터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KAA**

유재형 기자 yoojh1999@kaa.or.kr